

제목	국문	배아의 생명권에 대한 연구			
	영문	A Study on the Right to Life of a Embryo			
저자 및 소속	국문	유호종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의료법윤리학과			
	영문	HoJongYu Department of Public Health Law and Ethics, Graduate School of Health Science and Management Yonsei University			
분야	보건관리 [의료법]	발표자	유호종 [일반회원]	발표형식	구연
진행상황	연구완료				
<p>1. 목적</p> <p>오늘날 생명공학과 의학의 발전 방향과 한계를 둘러싸고 전세계적으로 많은 논란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중 핵심적인 문제 중 하나가 인간 배아에 대한 것이다. 즉 '배아를 연구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가' '수정이 아닌 복제의 방법으로 배아를 창출해도 되는가' 등등의 물음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현재 생명윤리 자문 위원회가 제안한 법안이 배아 복제를 전면 금하고 있고 배아 연구도 한시적으로만 허용한 것을 두고, 과학계가 크게 반발하여 갈등을 보이고 있는 상태이다.</p> <p>배아를 둘러싼 이런 윤리적 논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배아 연구나 이용이 배아 자신에게 미칠 영향 뿐만이 아니라 과학자, 의학자, 환자 등등에 미칠 영향도 모두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이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역시 배아가 생명권을 갖는가의 문제이다. 왜냐하면 배아에게 있어서 배아 연구나 이용의 허용여부는 바로 그 자신의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데 만약 배아가 생명권을 갖는다면 이 배아의 생명은 어떤 다른 관련자들의 이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배아가 생명권을 갖는지의 여부를 연구해 보기로 하였다.</p> <p>2. 방법</p> <p>배아가 생명권을 갖고 있는지 판명하기 위해서는 생명권의 근거는 무엇인지 우선 밝힌 다음 이 근거를 배아도 가지고 있는가 확인해 보면 된다. 만약 배아가 이 생명권의 근거를 제대로 갖추고 있다고 판명되면 배아도 생명권을 가지고 있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p> <p>그렇다면 생명권의 근거는 어떻게 밝힐 수 있는가. 그 한 효과적인 방법은 생명권을 갖고 있음이 분명한 존재자들을 찾아 내어, 이 존재자들이 어떻게 해서 생명권을 갖게 되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생명권을 가졌다는 것을 누구나 인정할 존재자가 인간 성인이므로 성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p> <p>그런데 성인에 대한 탐구의 결과 성인 생명권의 근거는 바로 '성인이 죽임을 당할 때 큰 피해를 입는다'는 사실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배아 역시 죽임을 당할 때 성인처럼 큰 피해를 입는가를 살펴봄으로써 배아가 생명권을 갖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p> <p>3. 결과</p> <p>성인을 죽이면 주변의 사람들은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되므로 이런 해악을 방지하기 위해 성인에게 파생적으로 생명권이 부여된다. 하지만 배아의 죽음은 주변에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불러 일으키지 않으므로 이런 근거에서는 배아에게 생명권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p>					

성인을 죽이는 것은 또한 그로부터 정신적인 고차원의 삶을 박탈하므로 성인은 이런 해악을 입지 않을 생명권을 갖게 된다. 그리고 우선 보기에는 배아 역시 이런 근거에서 생명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배아는 죽임을 당하지 않으면 계속 자라나 아기가 되고, 어린이가 되고 성인이 되어 고차원의 삶을 누릴 것이므로 배아를 죽이는 것은 배아로부터 이런 고차원의 삶을 빼앗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 옳기 위해서는 배아가 그로부터 자라날 아기, 어린이, 성인과 동일한 존재이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고차원적인 삶을 빼앗기는 것은 배아가 아닌 그 배아로부터 자라날 다른 존재자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14 일 이전 배아와 그로부터 자라날 성인과는 자아동일성에서 필수적인 1 대 1 대응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그것은 원시선이 생기는 14 일 이전까지 배아에는 쌍둥이가 될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가령 한 배아에 원시선이 둘 생겨 쌍둥이가 되었다고 해 보자. 이 경우 배아는 쌍둥이 둘 모두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고 쌍둥이들 중 어느 하나라고만 동일하다고도 볼 수 없다. 그러므로 배아와 그 배아로부터 자라날 쌍둥이들은 동일한 존재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쌍둥이들이 처음 존재하기 시작한 것은 빨라도 개체성이 확립되는, 배아가 둘로 나뉘는 이후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쌍둥이 현상은 매우 예외적인 현상으로 이런 예외적인 현상에 근거해서 배아가 그로부터 자라날 성인과 동일하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반론이 있으나 이 반론은 일관성 쌍둥이가 대개의 인간들보다 더 늦게부터 존재하게 되는 특이한 존재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렇다고 배아로부터 자라날 성인의 '존재할 권리'를 들어 여기서 배아의 생명권이 파생된다고 볼 수도 없다. 이렇게 어떤 근거에 비추어 보아도 배아에게 생명권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힘든 것이다.

4. 고찰

배아가 생명권을 갖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은 배아를 마음대로 처분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배아를 어떻게 취급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암시를 우리는 시신에 대한 취급에서 받을 수 있다. 인간의 시신은 이미 생명을 상실하여 더 이상 생명권을 가지지 않음에도 우리는 그 시신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다루며, 훼손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바로 그 시신이 얼마전까지 한 인간의 몸을 이루고 있었던 물질이라는 점 때문에 갖게 된 상징성 때문이다. 우리는 가령 시신 훼손에서 산 사람에 대한 가혹한 처사를 쉽게 연상하게 되는 것이다.

배아는 그로부터 자라날 어린이와 성인의 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그것들을 상징하는 의미를 가질 것이다. 이런 상징성 때문에 어린이와 성인이 갖는 존엄성과 생명권은 이 배아에게도 투영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될 수 있는 한 배아를 존중하고 훼손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배아를 존중해야 할 이런 이유는 어떤 보다 중요한 고려사항이 있을 때는 무시될 수도 있다. 시신의 경우도 보통은 훼손하지 말아야 하지만 장기 적출이나 교육용 해부 등의 더 중대한 이익이 문제되는 상황에서는 훼손이 허용된다. 그렇다면 난치병이나 불치병 치료를 위해 배아를 연구, 이용하는 것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어떤가. 적어도 이 상황에서는 배아를 존중해야 할 이유보다 더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들이 있어 보인다. 그것은 바로 불치병, 난치병 환자의 간절한 희망이다.